[유안타증권 주식시황 Weekly]

주간:知

코스피 신고가 경신? 여전히 매력적! (4월 4주)

이재원 Market Analyst 02 3770 5719 I jaewon2.lee@yuantakorea.com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

SUMMARY

코스피 신고가 경신? 여전히 매력적! (4월 4주)

- 금주(4/17~4/23) KOSPI와 KOSDAQ은 각각 4.6%, 2.2% 상승하며 신고가 경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견조한 기업 실적과 이익 모멘텀이 지정학적 갈등 등 매크로 이슈를 압도하는 구간입니다. 6,500pt 돌파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부 무기한 휴전 연장 선언 등의 스탠스를 봤을 때 지정학적 변동성을 넘어선 이익추정치 상향 주도의 실적 장세 흐름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은 4월 신고가 견인 주체로 활약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대형주 외국인 시총 비중이 3월 말 역사적 저점 부근에서 반등하는 '귀환' 흐름이 뚜렷하며, 4월 지수와의 상관계수는 외국인 0.85, 금융투자(ETF) 0.9로 두 주체가 신고가 경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펀더멘털은 견고합니다. 26년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가 전주 대비 8.9조원 증가한 600조원을 돌파했고, 반도체 EPS 변화율 +44%를 필두로 이익추정치 상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월 1~20일 수출액은 504억달러(YoY +49.4%), 반도체 수출은 +182.5%로 호수출 흐름이 이어지며 대형주 어닝 서프라이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이익 뿐 아니라 상법 개정이 야기한 ROE 개선 효과도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26년 자사주 소각액이 이미 25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고 ROE는 25% 역대급 수준에 도달했으나, ROE-PBR 산포도상 한국은 글로벌 대비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밸류에이션 매력은 유효합니다. 27일 예정된 고유가 피해지원금(6.1조원) 지급 또한 유동성 환경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업종 전략은 'Stick to the Status Quo(현상 유지)'입니다. 4월 상승을 주도한 ①반도체 ②상사·자본재(방산) ③기계(전력) ④IT가전(2차전지) ⑤조선 중심 호실적·호수출 대형주 전략을 유지하되, 이익추정치 상향 대비 주가 회복이 더딘 업종(증권, 화장품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증권 업종은 4월 거래대금 재확대와 호실적 발표 기대감 여전해 저가매수가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견조한 펀더멘털로 시선 집중 지속

1분기 실적 발표 속 강력한 실적 모멘텀으로 시장 시선 이동

펀더멘털(이익) 견조

외국인 귀환 + 기업 실적 기대 + 유가,금리,환율 안정화

한국 주식시장 반등

지정학적 변동성 감소

세계 동반 신고가 + 트럼프, 종전 희망 지속 + 협상 기대 (양국 양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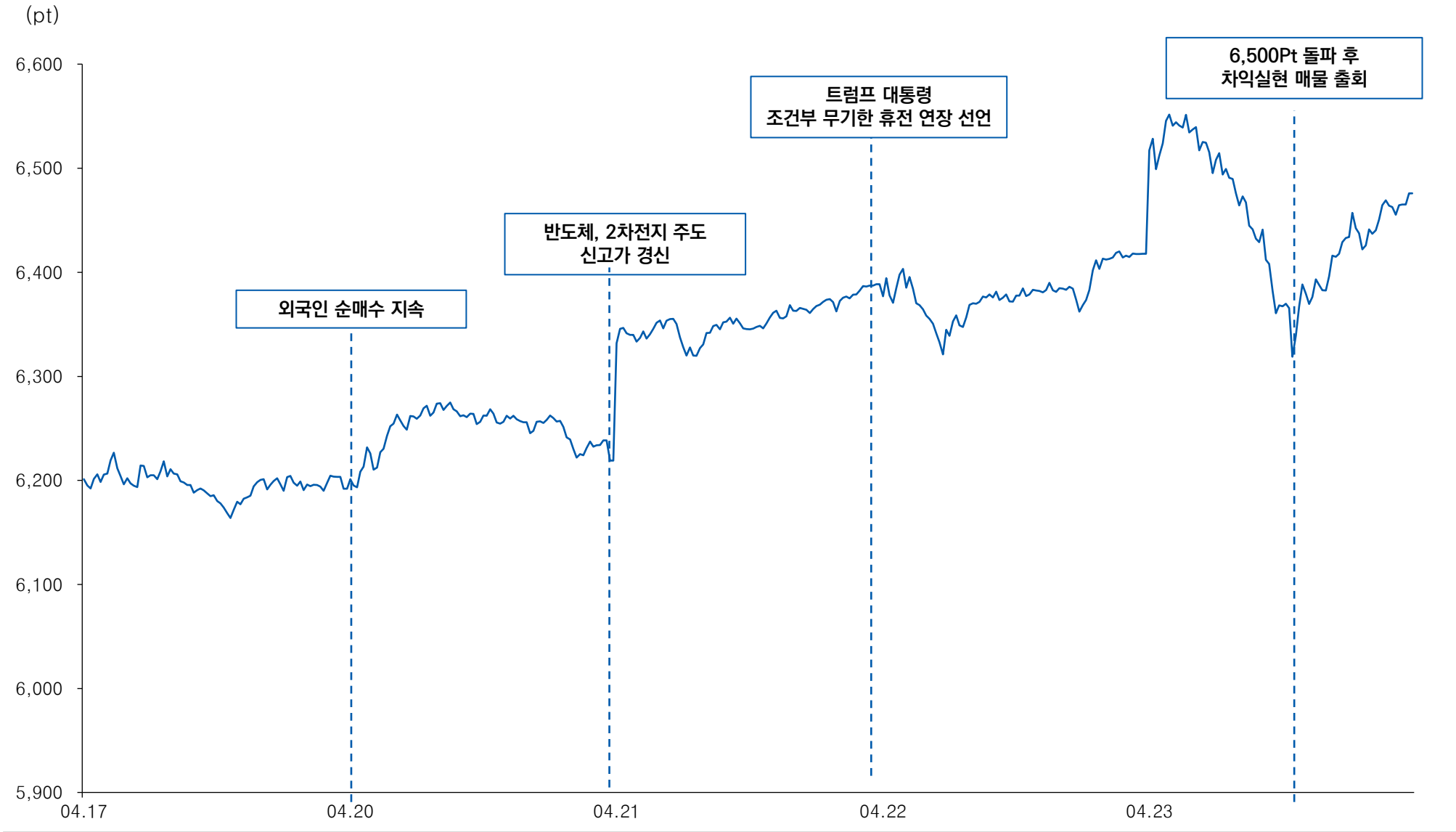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

신고가 경신 지속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신고가 경신한 KOSPI

KOSPI 주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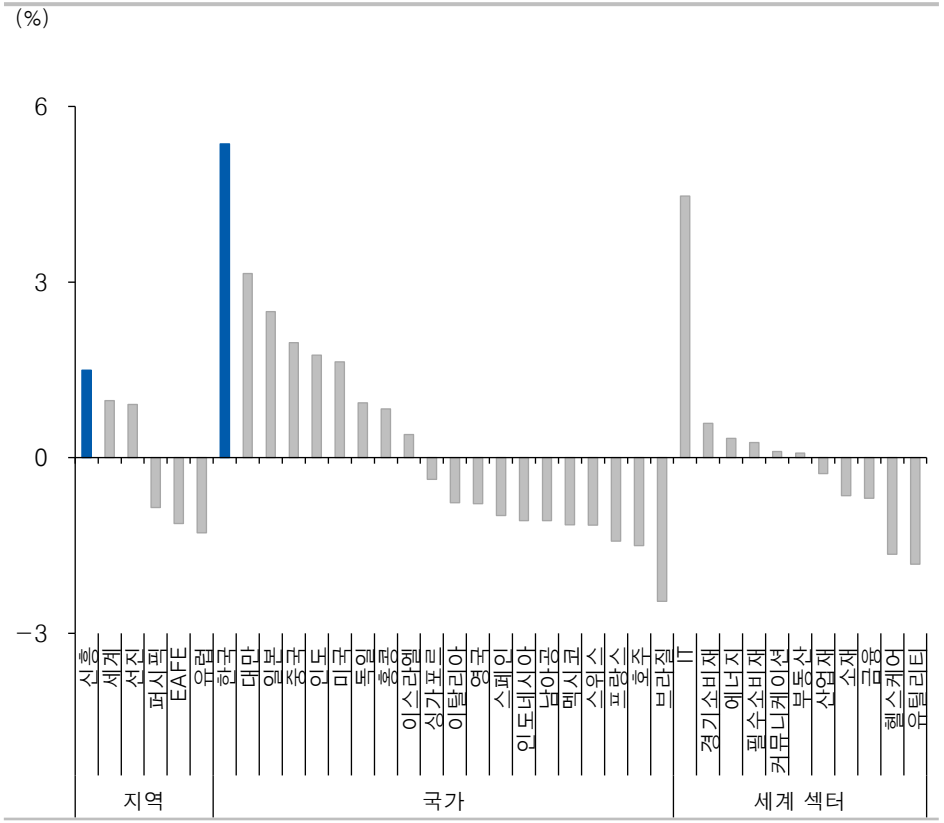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주식시장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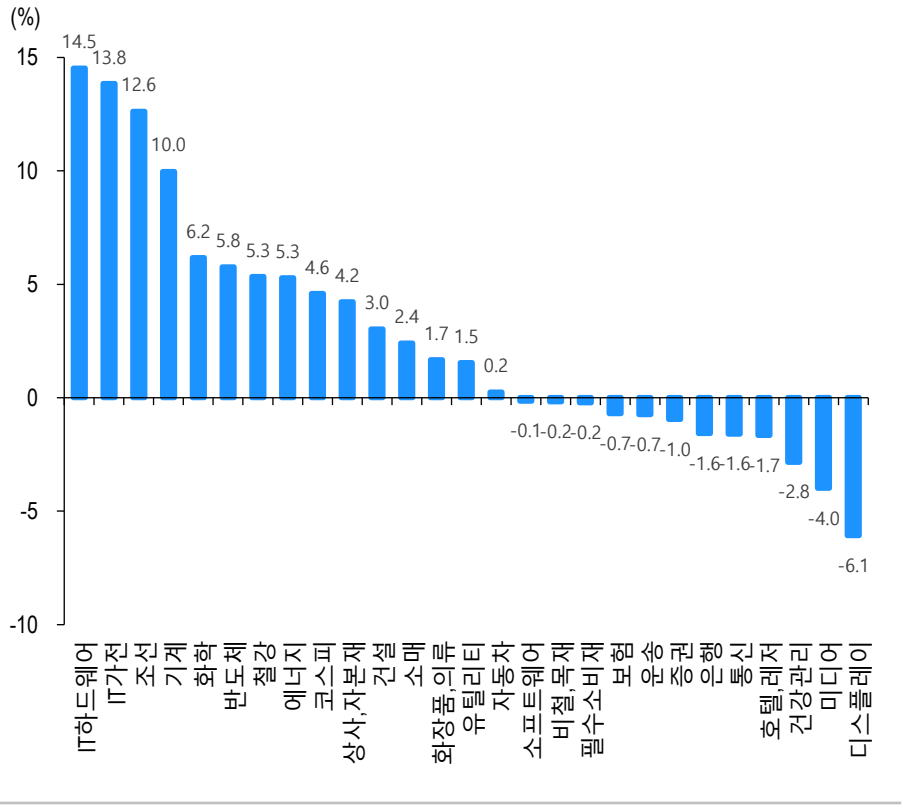
- 주간(4/17~4/23) KOSPI, KOSDAQ 각각 4.6%, 2.2% 상승. 기업 실적 발표에 집중. 잇따른 호실적 및 어닝서프라이즈에 이익추정치 상향 지속되며 신고가 경신에도 밸류에이션 매력 확보
- 업종별로 IT 강세 지속됐으며 2차전지(IT가전) 업종이 ESS 시장 성장 및 리튬 가격 반등, 턴어라운드 기대감 및 벤츠 수주 모멘텀까지 더해지며 강세
- 세계 주식시장 신흥 시장 강세 지속. IT 중심 이익 추정치(펀더멘털) 상향이 매크로 이슈(지정학적 갈등) 압도하며 한국, 대만, 일본 강세

주간 세계 주식시장 수익률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4월 22일 종가 기준

주간 KOSPI 업종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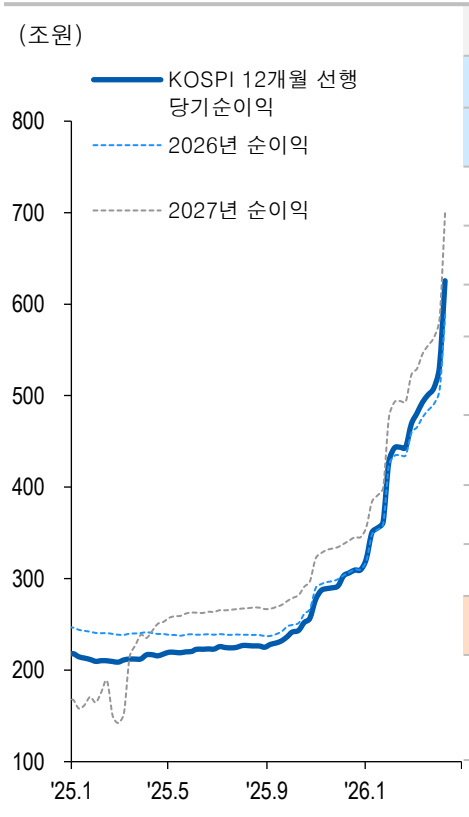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4월 23일 종가 기준

26년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600조원 돌파

- KOSPI, KOSDAQ 이익추정치 상향 지속.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전주 대비 8.9조원 증가
- KOSPI IT 섹터 이익 증가 지속. 업종별로 비철, 반도체, 에너지 업종 주간 EPS 증가 상위
- 유틸리티, 운송, 미디어 업종 주간 EPS 하락 상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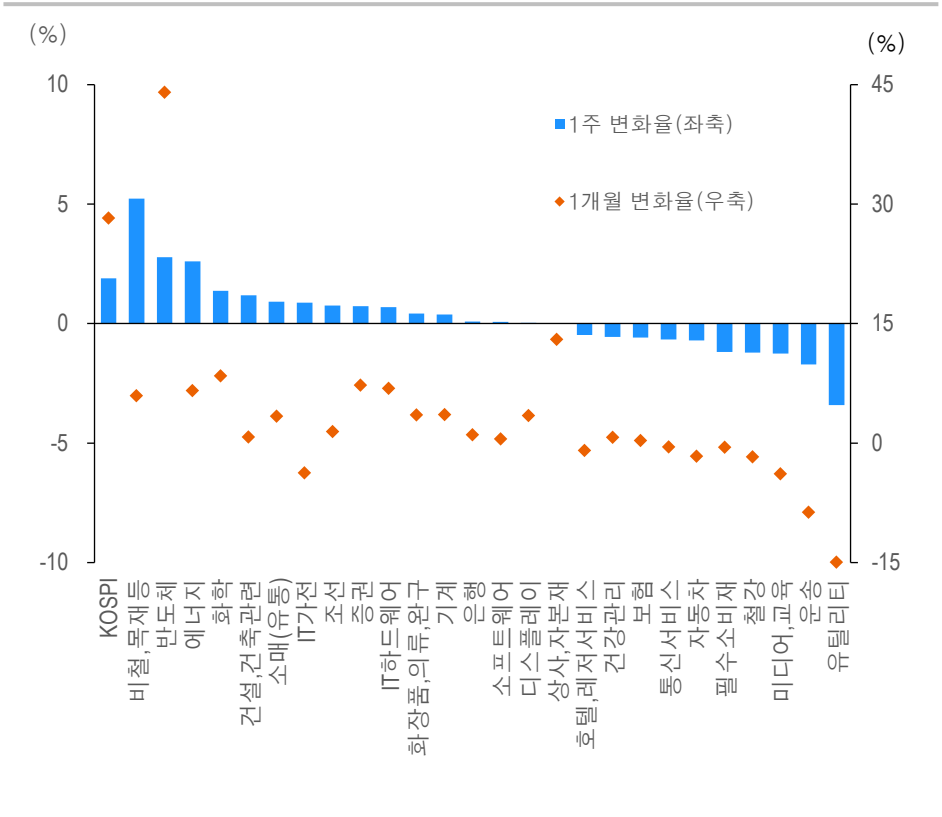
KOSPI, KOSDAQ 섹터별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조원)	현재	전주	증감
KOSPI	600.9	592.0	8.9
KOSDAQ	9.7	9.5	0.2
에너지	6.1	6.1	0.1
소재	5.4	5.3	0.0
산업재	62.4	62.3	0.1
경기소비재	35.6	35.3	0.2
필수소비재	3.9	4.1	-0.2
건강관리	4.6	6.4	-1.8
금융	45.8	45.7	0.1
IT	426.5	415.7	10.8
커뮤니케이션	10.2	10.2	0.0
유틸리티	10.3	10.5	-0.3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12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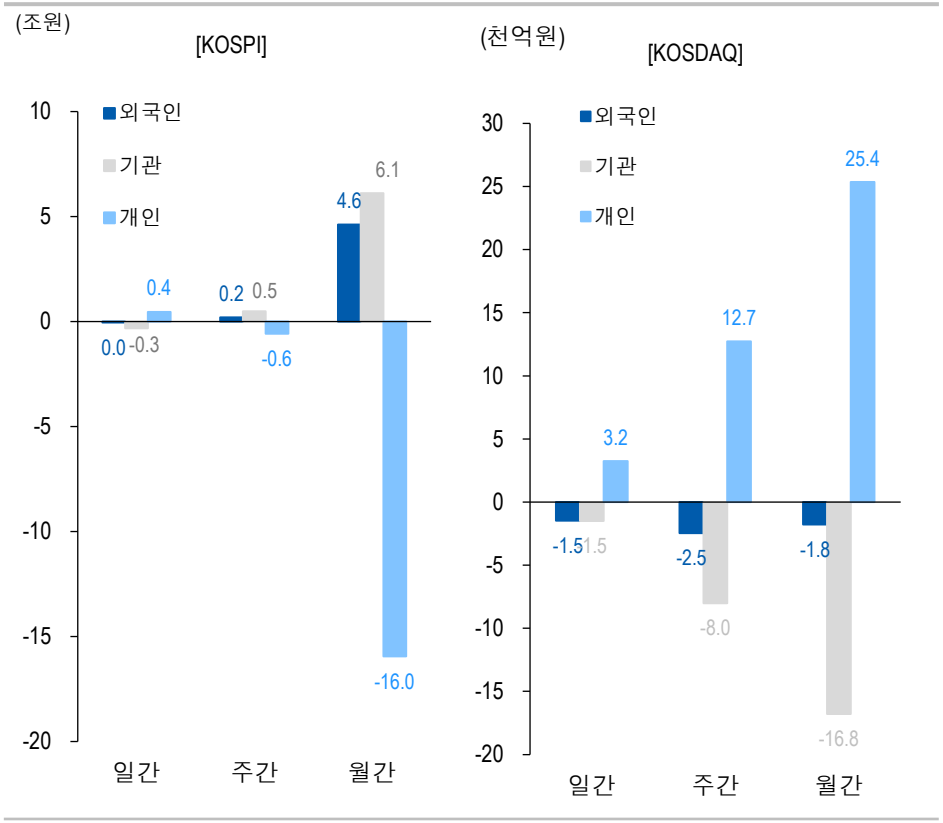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4월 순매수 지속

- 외국인 주간 0.2조원 월간 4.6조원 순매수하며 4월 신고가 경신 과정에서 순매수 주체로 활약 지속. 삼성전자 등 대형주 외국인 시총 비중 3월말 역사적 저점 부근에 도달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되며 신고가 경신
- 외국인 순매수 상위 업종은 시총 상위 대형주. 해당 업종들 이익추정치 하향 부재했으나 전쟁 이후 차익실현 매물 출회. 4월 외국인 순매수 지속되며 강세
- 증권, 조선 등 이익추정치 상향 지속 됐음에도 주가 흐름 약했던 업종 기관 자금 유입 확인. 저가매수 유입 기대 가능

KOSPI, KOSDAQ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KOSPI 투자자별 순매수·매도 상위 업종

	외국인	기관	개인
순매수 상위	반도체	조선	건강관리
	기계	반도체	자동차
	건설,건축관련	IT가전	소프트웨어
	상사,자본재	에너지	증권
	에너지	기계	은행
순매도 상위	증권	보험	IT가전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조선
	소프트웨어	자동차	에너지
	자동차	건설,건축관련	기계
	조선	건강관리	반도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Market Calendar- 실적, FOMC Super Week

4월 4주차 주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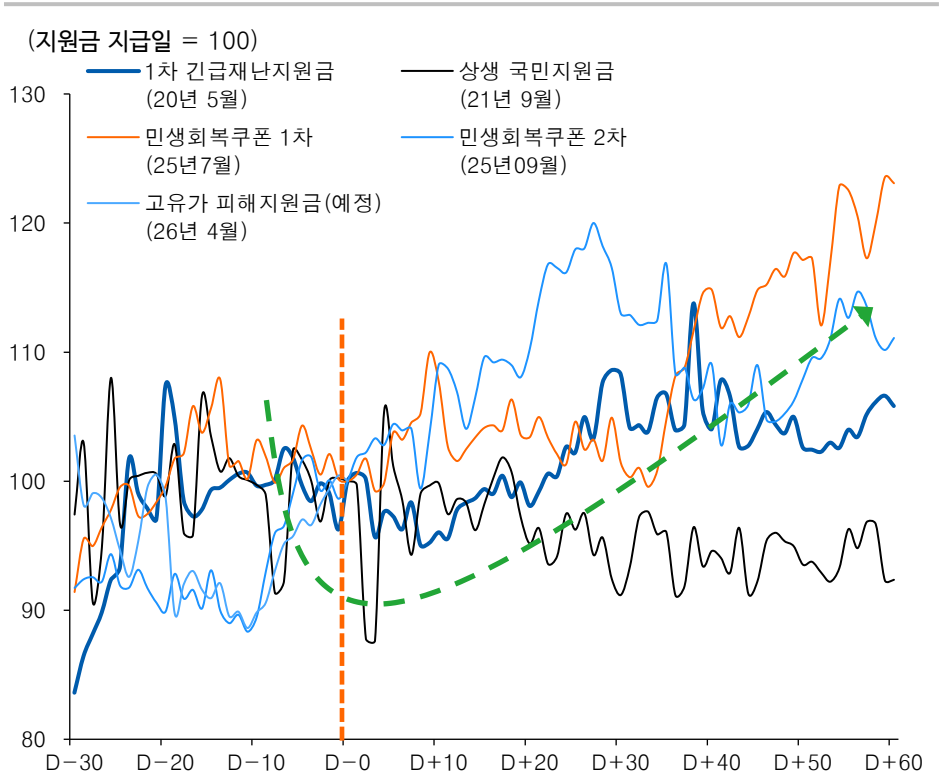
	4월 27일(월)	4월 28일(화)	4월 29일(수)	4월 30일(목)	5월 1일 (금)
경제지표		미국) ADP 민간고용, 4월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FOMC 결과 발표** **(한국시간 30일 새벽)**		미국) ISM 제조업지수
정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업	한국)HD현대건설기계, ISC, LG이노텍, 동양생명, 한화시스템/오션 미국)버라이즌	한국)HD현대일렉트릭, HK이노엔, 대우건설, 두산밥캣, 삼성SDI, 한화솔루션, 현대건설 미국) 누코, 비자, 스타벅스, GM, 코카콜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포드, 퀄컴 한국)KG스틸, LG전자, LX인터내셔널, 넥센타이어, 대덕전자, 대한조선, 대한전선, 두산, 두산에너빌리티, 아모레퍼시픽, 에코프로그룹주, 제이브이엠, 하이브	한국) BNK금융지주, GS건설, LG생건, CNS, 엔솔, 화학, NAVER,POSCO홀딩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엘앤에프,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키움증권,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퓨처엠, 한미약품 미국) **애플,** 캐터필러, 마스터카드, 머크, **샌디스크**, 암젠, 일라이릴리	미국)셰브런, 엑슨모빌
주목 Point	한미 기업 실적발표 하이라이트. 미국 M7 실적 다수. 샌디스크같은 반도체 업종도 실적 발표 예정. 매크로 지표 역시 FOMC 회의, ISM제조업지수 등 굵직한 이벤트 대기. 실적 확인하며 중동 지정학적 갈등 진행 상황 및 파월 기자회견 내용 주시 필요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현지 시간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유동성 확대 및 주식시장 자금 간접 유입 기대

-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6.1조원 규모) 지급 예정. 과거 재난 지원금 지급 이후 고객 예탁금 증가 기울기 평균적으로 가팔라졌던 경험칙 상기 필요
- 단, 지원금 자체의 직접적 증시 자금 유입 효과는 제한적이나 유동성 확대로 단기 유동성 환경에 우호적으로 작용 기대

지원금 지급 전후 고객 예탁금 궤적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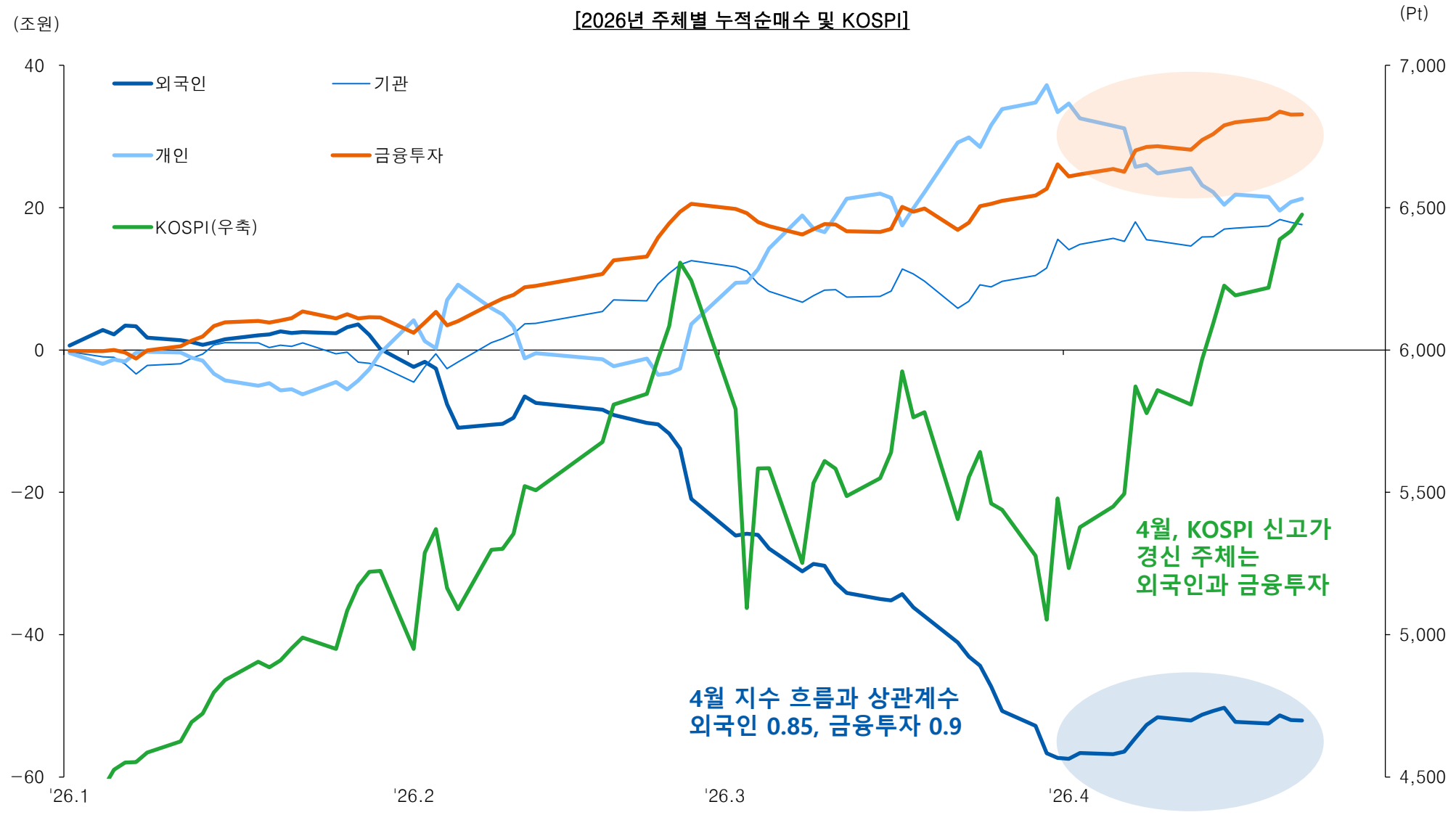
전국 단위 지원금 지급 이력

회차	명칭	지급시기	규모 (조원)	대상 / 지급액
1	긴급재난지원금 (문재인)	20.5	14.2	전국민 2,216만 가구 / 가구당 40~100만원
2	상생 국민지원금 (문재인)	21.9	11	소득 하위 88% / 1인당 25만원
3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이재명)	25.7	12.2	전국민 / 1인당 15~45만원
4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이재명)	25.9	1.3	소득 하위 90% / 1인당 10만원
5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재명)	26.4.27~	6.1	소득 하위 70% / 1인당 10~60만원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월 지수 V자 반등 및 신고가 경신, 외국인과 금융투자(ETF)가 순매수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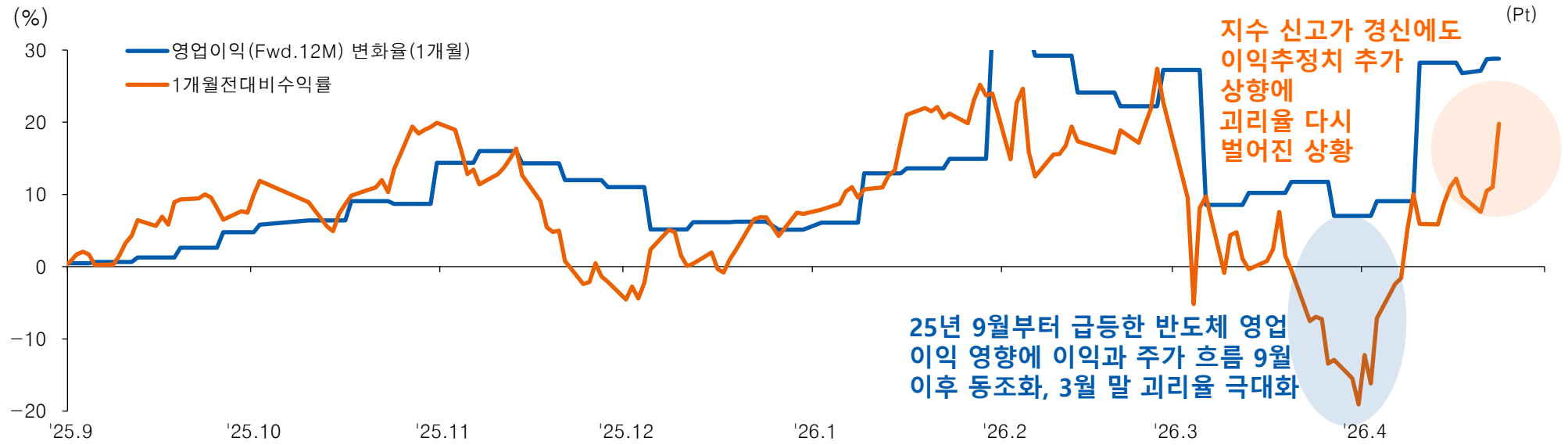
전쟁 이전 수준의 주가 회복은 전세계 주식시장 동반 진행 완료. 한국 EPS 상승 속도 대비 주가 회복력 더뎌. 갭 매우기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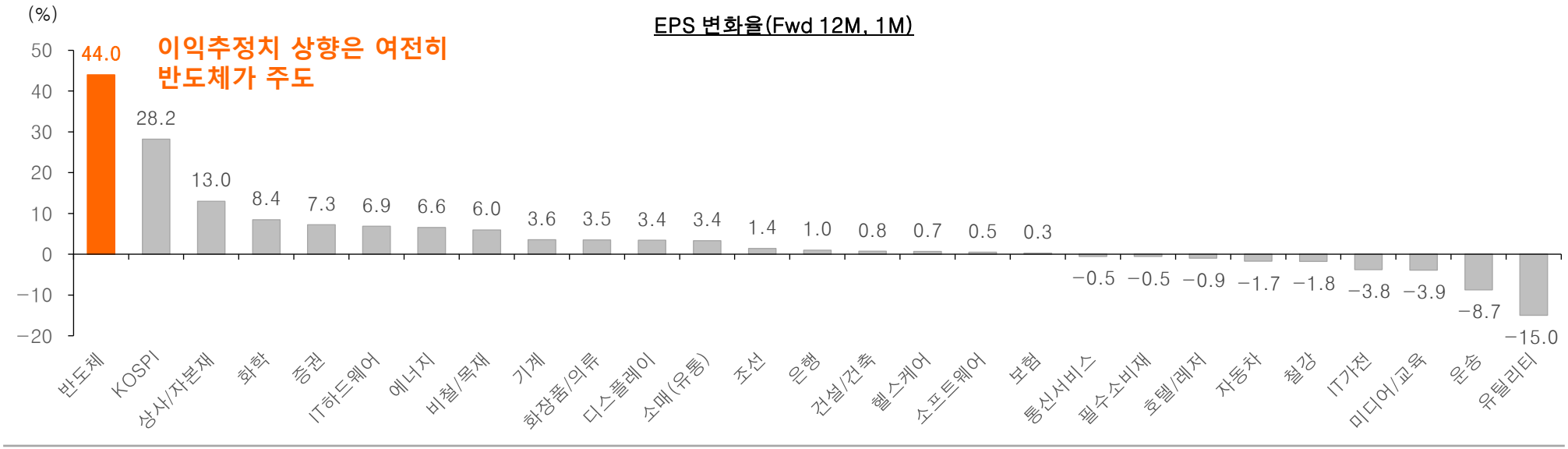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신고가 경신에도 여전히 EPS를 따라잡지 못하는 KOSPI 지수

EPS 상승 속도 대비 주가 회복력 여전히 더뎌. 갭 매우기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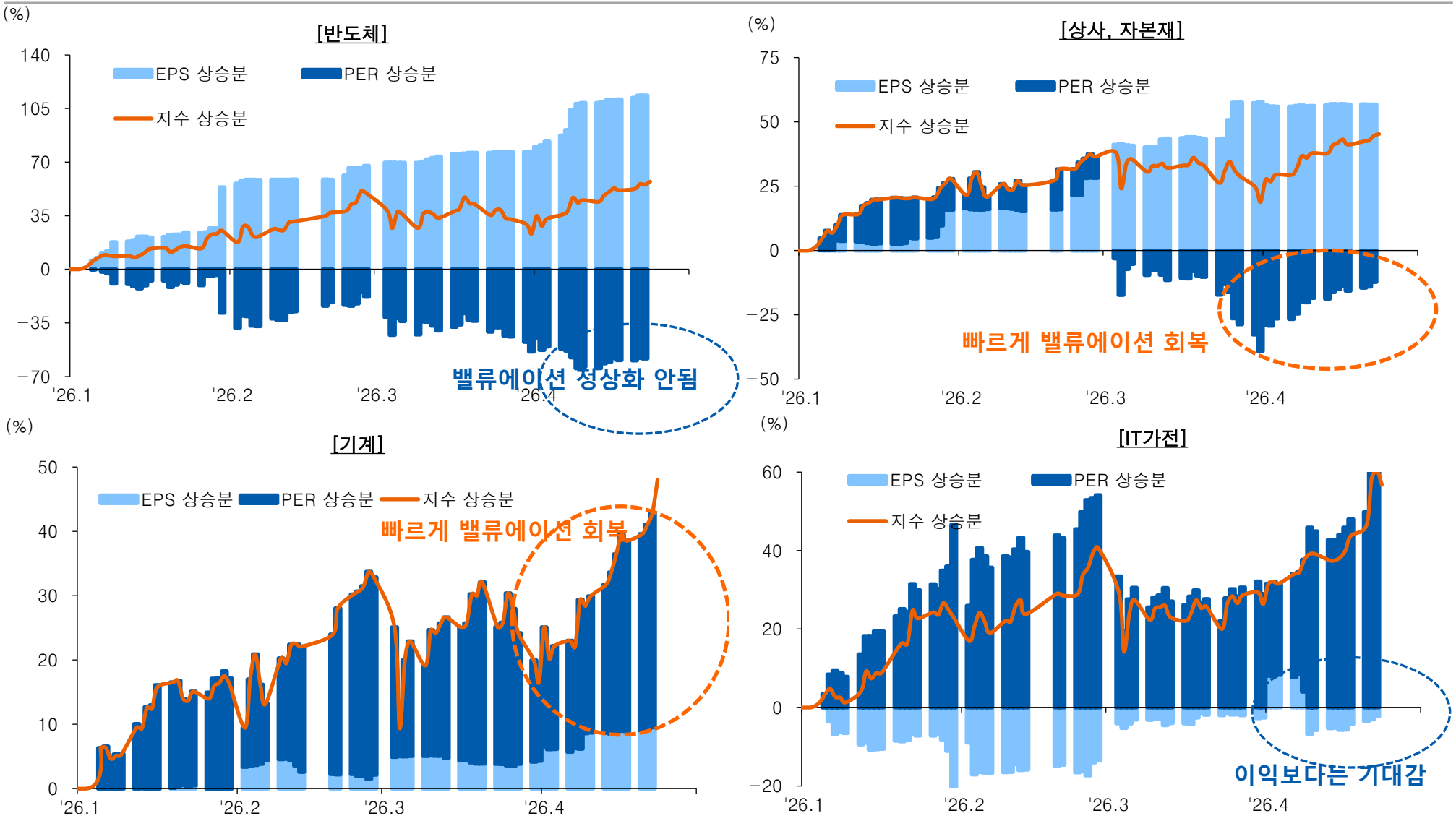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지수 상승 주도 업종 중 반도체만 급격한 EPS 상승 탓에 밸류에이션 회복 미흡

상승 주도 업종 중 단연코 상승기여도 1위인 반도체 업종의 이익추정치 상향 속도 너무 빨라 주가가 못따라잡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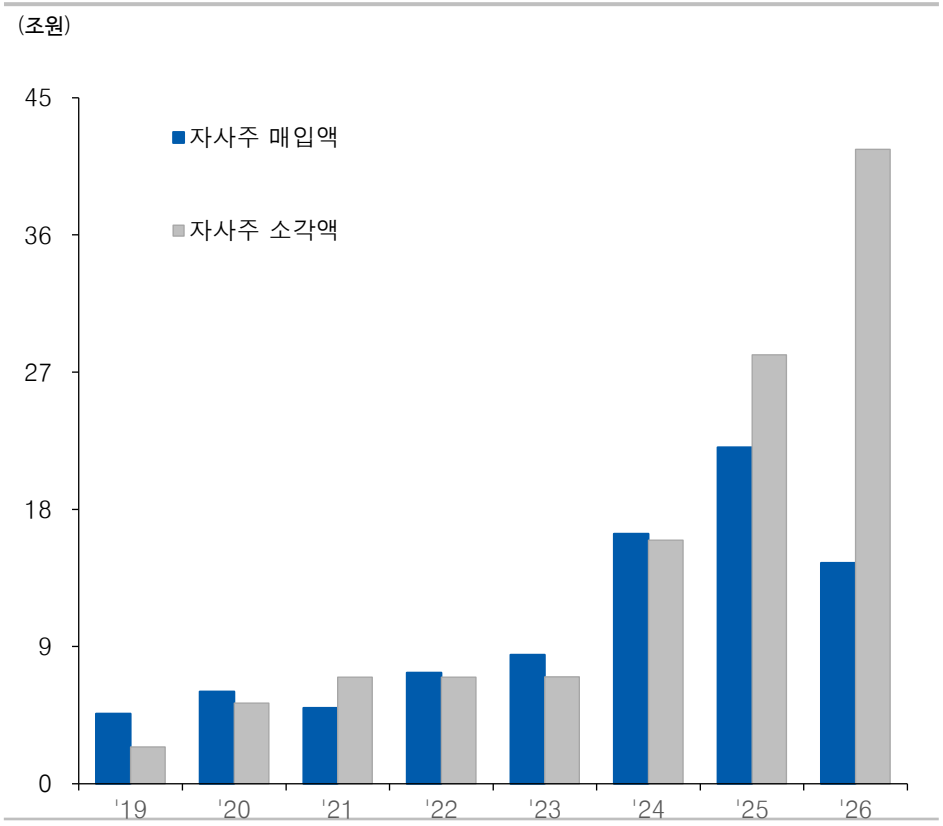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NOT ONLY 이익, BUT ALSO 상법 개정이 야기한 ROE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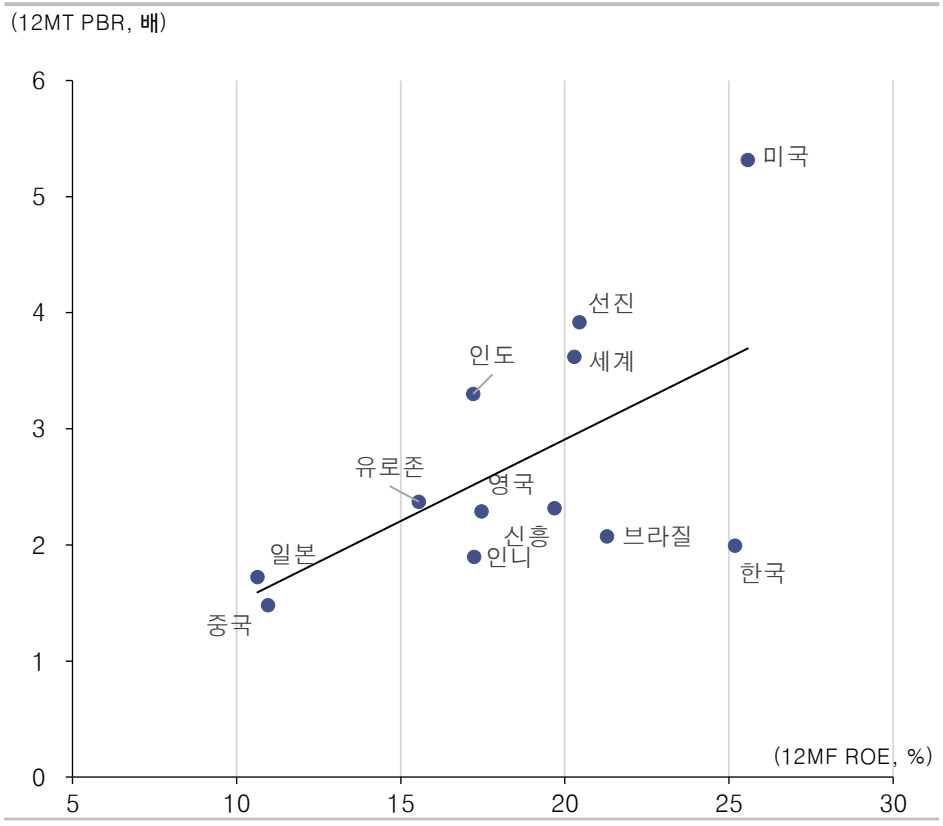
- 이익 상향 조정으로 KOSPI 순이익률 상승하며 ROE 25%의 역대급 수준. 미국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ROE-PBR 산포도 확인 시 지수 신고가 경신에도 미국 포함 글로벌 주식시장과 비교 시 여전히 저평가 확인
- 순이익률 개선 효과 뿐 아니라 상법 개정 효과도 지속. 26년 자사주 소각액 이미 25년 넘어서. 실적 발표와 함께 주주환원 정책 추가 발표 잇따르는 것 역시 주식시장에 우호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 호실적 & 주식수 감소로 BPS 개선 지속 기대

상법 개정 효과로 자사주 소각액 이미 25년 전체 소각액 넘어서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이익추정치 상향 조정으로 한국, 미국과 비슷한 R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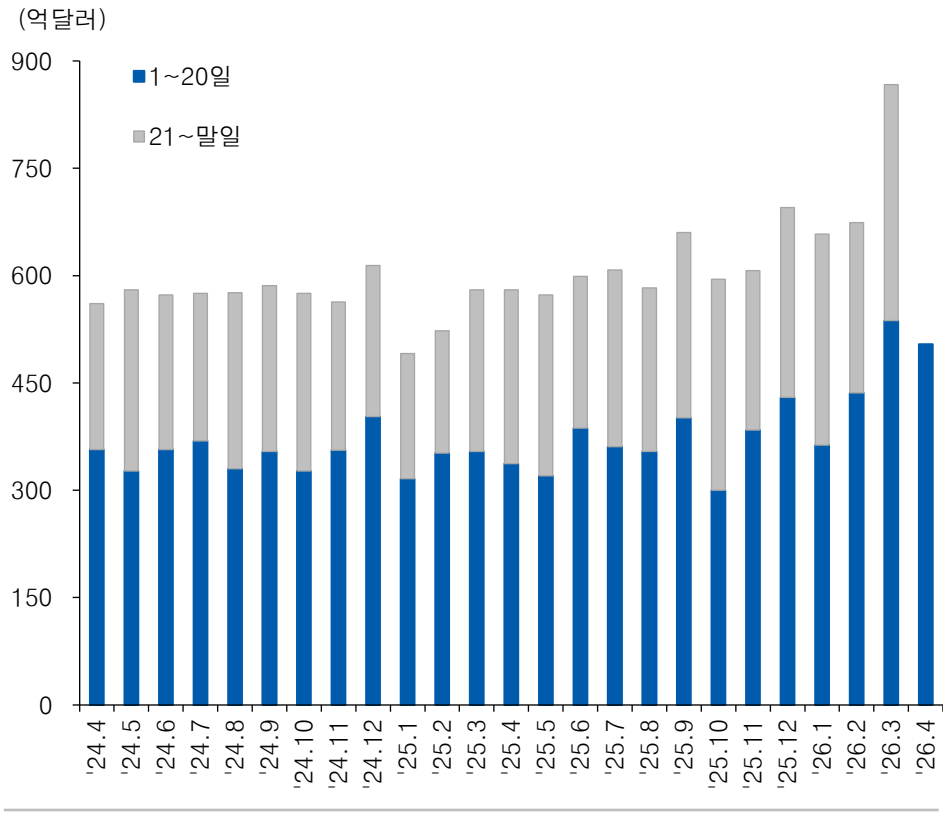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수출과 실적 전선 이상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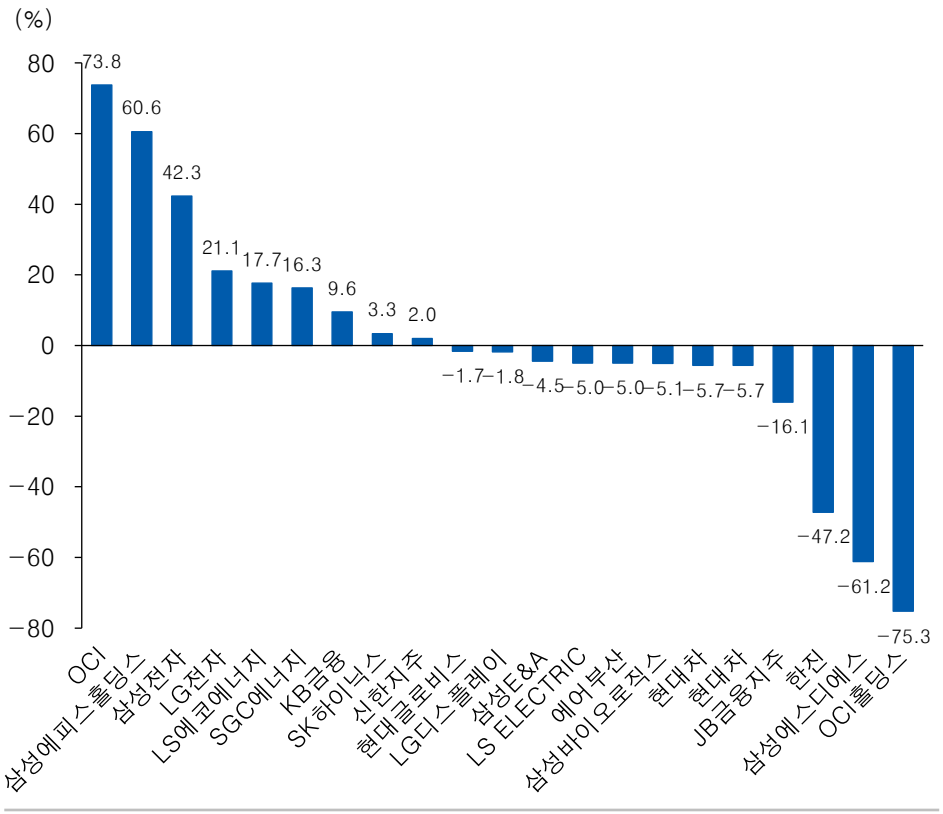
- 현재까지 KOSPI 실적 발표 기업 중 대형주 어닝 서프라이즈 지속. 지난주 주간:知 내용과 마찬가지로 수출과 환율 효과 고려시 제조업 수출주 실적은 지수 상방압력
- 4월 1일~20일 수출 504억달러로 전년 대비 49.4% 증가. 반도체 수출 증가율 전년 대비 182.5%로 호수출 지속

4월 호수출은 지속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실적 발표도 기대 지속. 대형주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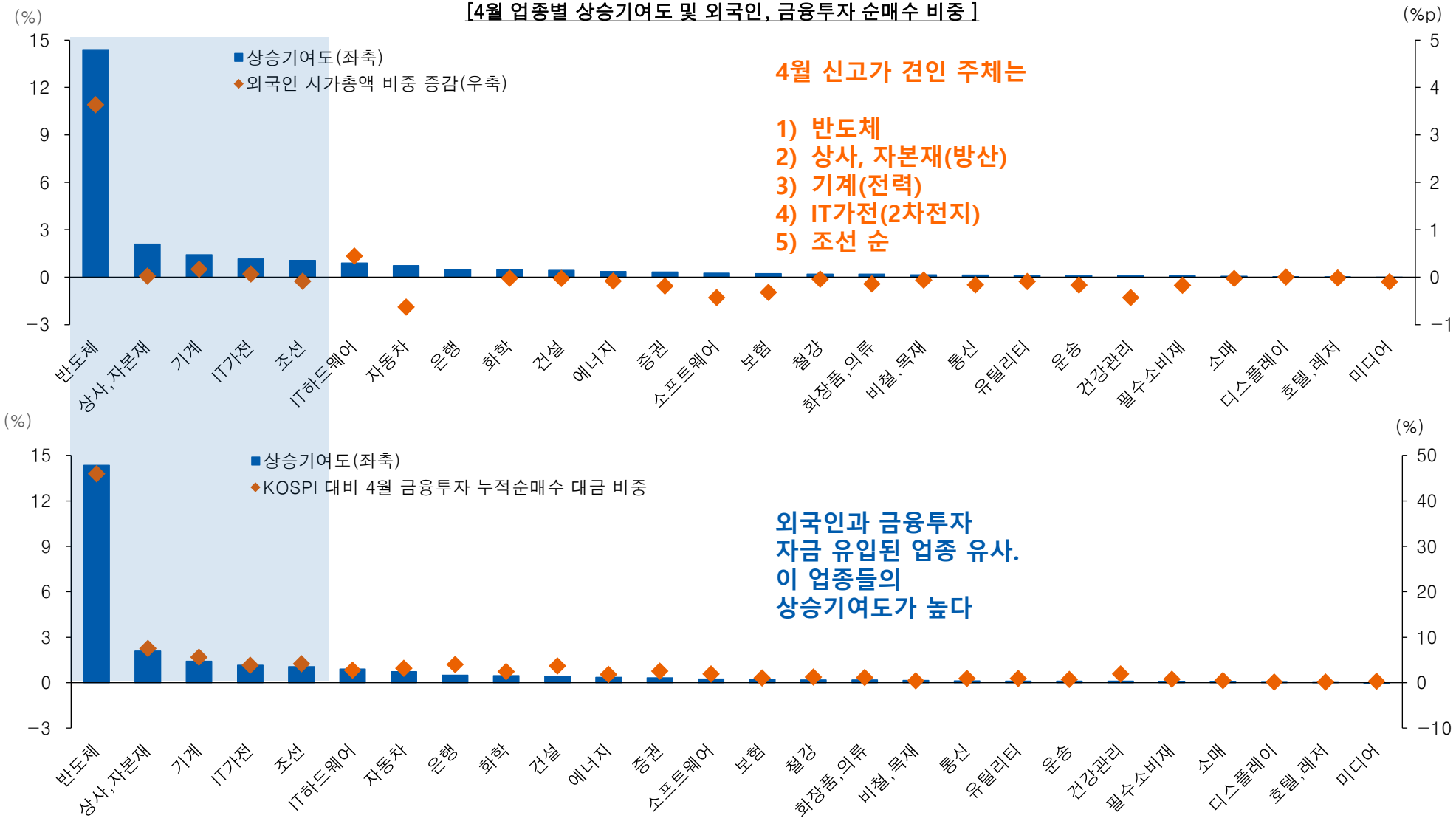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월 지수 상승 견인한 반도체, 방산, 전력기계, 2차전지. 외국인 & 금융투자가 샀다

4월 신고가 견인 주체 업종은 외국인, 금융투자가 순매수주체로 활약하여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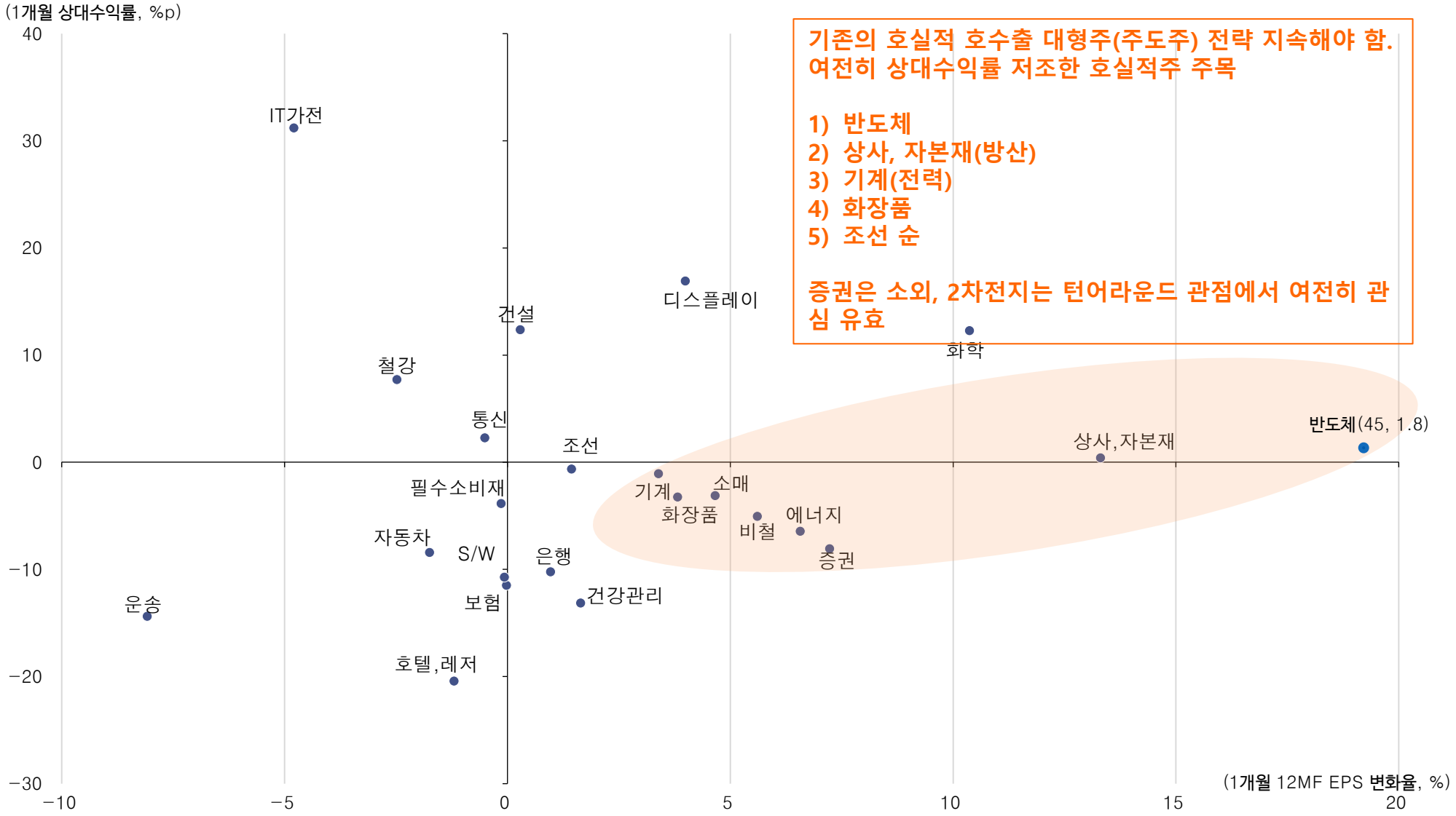
[4월 업종별 상승기여도 및 외국인, 금융투자 순매수 비중]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업종 전략: Stick to the Status Quo(현상 유지)

실적 시즌 이익 추정치 상향 주도하는 업종 중 상대수익률 여전히 낮은 업종들 지속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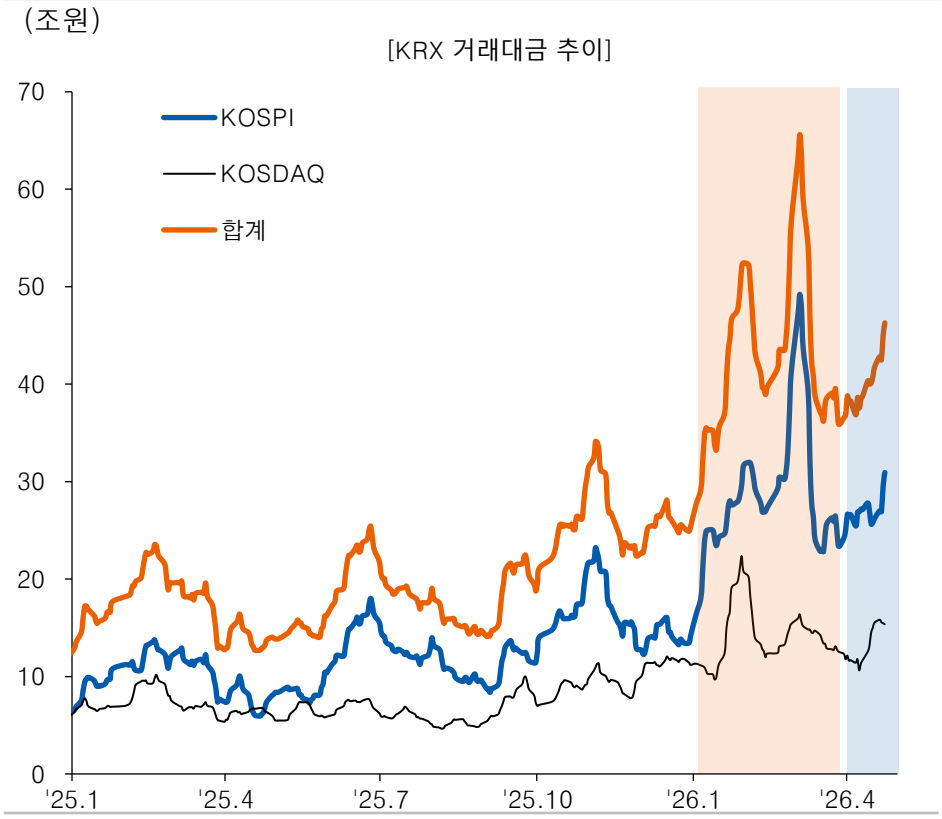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아이디어 -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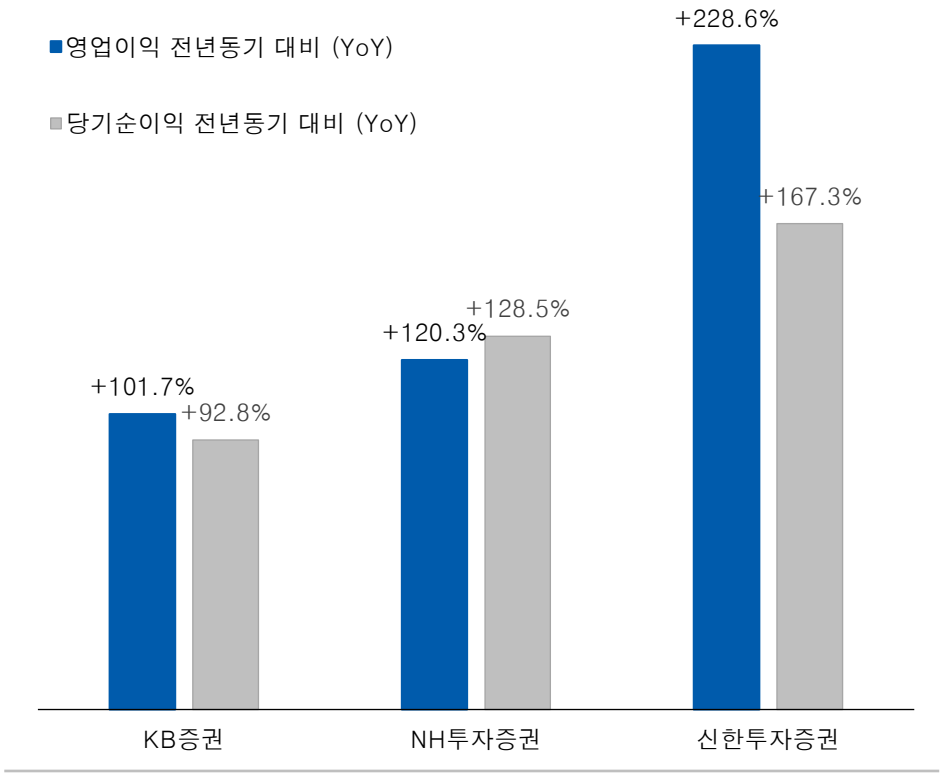
- KOSPI, KOSDAQ 3월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도 거래대금 여전히 우상향. 4월 지수 V자 반등 일어나며 거래대금 확대 재개. RIA 계좌도 4월 21일 기준 16만좌 육박. 누적 잔고 1조원 돌파하며 흥행 지속되는 흐름. 증권사 수익 개선 및 한국 주식시장 자금 유입 기대 요인으로 작용
- 이 와중 이번주 발표된 증권주 실적 역시 전년 대비 대폭 개선된 호실적 발표. 다만 대형 수출주 쏠림에 증권 업종은 약세. 저가매수 기대 가능한 상황

1분기 거래대금은 여전히 과거 대비 높은 수준 유지, 4월 반등



자료: :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거래대금 증가에 맞춰 1분기 증권사 호실적 발표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간:知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